

## Fiddle while Rome burns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로 산업과 사회, 정치가 모두 격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비유하듯 서기 65년 네로 황제가 특별한 조치 없이 불타는 로마시를 며칠 동안 바라만 보았다는 일화로 사실 여부를 떠나 위기 상황 속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룬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의 행동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한 위기와 충격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위기 속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다. ESG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측정, 관리하는 새로운 의사결정과정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예봉이다.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위기, 리스크 가운데 어려운 투자 기회나 위기를 '백조'라 일컫는데 특히, 발생 확률이 낮은 위기를 '스완 리스크'라 한다. 이보다 더 발생 확률이 낮은 위기는 '블랙스완'으로 경제학자들은 2008년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블랙스완'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백조', 바로 '그린스완'이 등장했다. 검은색 백조가 희귀하다고는 하지만 극히 드물게 자연계에서는 볼 수 있는 반면, '그린스완'은 전혀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스완'은 기후변화 리스크로 정치, 경제, 산업 및 사회가 모두 격변하는 거대한 충격을 과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1년,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GermanWatch),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50%), 배출 수준(30%), 기후정책(20%)의 3가지 지표로 국가별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는 없었으며, 4위(스웨덴), 5위(영국), 덴마크(6위), 캐나다(58위), 미국(61위)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전체 61위 중 53위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서도 소극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며 매우 미흡(very low)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좌초자산, 특정 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가치가 떨어진 자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파리기후협약의 적극적 이행에 따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좌초자산이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 즉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국가별 정책, 국내외 대응 현황, 주요 기관별 평가지표, 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이다. 간단히 말해, 이 책의 논지는 ESG의 거대한 변화 요구가 정부, 기업, 개인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경영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ESG의 개념과 운영 체계는 한동안 더 복잡해지는 역학적(dynamic) 과도기 시기로 국가 유형별, 산업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근본적인 기회를 제공하리라 예상된다. 특정 국가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학문 연구가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것도 그리 많지 않다.

반면에, ESG는 숨어 있는 경제적 패권, 힘의 논리 등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에는 현 ESG 추진의 필요성, 당위성과의 방향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주장은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매우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그러한 주장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위의 열거한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진전에 깊은 존중을 가지고 비방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좀 더 과학적으로 초점이 조정된 조사로 옮기는 하나의 전략을 제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이론과 방법이 복잡하더라도 후속 작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길 희망한다.

‘위기만이 그것이 실제이든 인식이든 간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낸다.’

-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